

거제 사람 - 대한시조협회 거제지회 김재언 (78) 회장

“거제의 국악정가 선비정신으로 지킵니다”

오는 9월5일 거제시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제20회 전국 국악정가 경연대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 거제지회가 주관·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사실 올해로 21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대회 유지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유행이 여전하지만 대한시조협회 거제지회 김재언 (78) 회장은 소중한 전통문화물 지키고 보존해야 하기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전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악정가 경연대회는 쉽게 설명하면 시조를 읊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어렵고 딱딱한 문화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시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재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명절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려오는 날, 대한시조협회 거제지회를 찾았다.



거제시조협회와 김재언 회장

“60살이 넘어서야 시조를 알게 됐고, 그 때부터 빠져 17년째 시조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가자의 방문을 기다리는 김 회장의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청량해 보였다. 웃고 뽀뽀하는 모습에서 친근한 기분이 느껴졌다.

올해로 46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거제시조협회는 1970년대 신봉권 초대회장으로 부터 지역 시조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되고 있는 단체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히 회원이 몇명인지 조사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옛 명성이 사라진 상태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 국악정가 경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선 행정에 각종 서류도 작성하고 결산 서류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럴만한 여력조차 없다.

그래서 현재 거제시조협회의 운영은 김 회장의 가족은 물론 회원들의 측근까지 동원해 일을 도와주고 있다.

흥겨운 유행가나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에 비하면 사실 시조가 재미없다는 것

은 김회장이 잘한다. 그래서 회원은커녕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태지만 김 회장마저 이 전통의 끈을 놓는다면 더 이상 거제 땅에서 시조 읊는 소리는 들을 수 없을지 모른다면 웃음이 사무실을 지켜내고 있었다.

멸종위기 전통시조의 품격

“시조인중중시조중 (時調人重時調重) 시조인중중시조중 (時調人重時調重)이란 말이 있지요.”

김 회장의 시조 사랑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시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시조인중중시조중 시조인중중시조중이란 말은 시조를 하는 사람은 언행이 무거우면 시조의 무게가 나가지만 시조를 하는 사람의 언행이 가벼우면 시조의 품격이 떨어진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김 회장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그리고 늘 시조를 듣고 시조 경청을 연습하고 있다.

거제시조협회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시조장 감습실에서 김 회장의 모습도 늘 곧고 바르다. 그사이로 자신이 사랑하는 시조의 품격을 지킬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시조에도 악보가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평소와 한뼘을 옮겼다. 조선시대 정악의 기풍으로 노래하는 성악곡답게 우아하면서 정대·화평한 기풍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목소리를 연주했다.

어렵지만 꼭 지켜야 할 우리 문화유산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지요.”

김 회장은 이 좋은 문화유산(시조)이 서구풍 노래에 밀려 외면당하고 있지만 대회를 통해 진정한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거제에서 열리는 국악정가 대회에는 학생부가 없지만 전주에만 기도 학생부들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국악정가는 조선시대 정악의 기풍으로

노래하는 성악곡으로 우아하면서 정대·화평한 기풍을 지녔다. 판소리와 함께 한국의 3대 성악곡의 하나에 들어 비교적 느리고 단조롭게 부르는 것이 특징이지만 창법이나 소리기술은 판소리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한다.

김 회장의 소망은 소중한 전통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조가 어떤 것인지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시조에 대한 자랑으로 함박웃음을 짓던 김 회장은 시조 감습실에서 카메라를 갖다 대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미소 한번 지어 달라는 요구에 김 회장은 “시조하는 사람은 선비처럼 흐트러져선 안된다”며 곧게 앉은 자세를 지켰지만 얼굴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김 회장의 시조 사랑만큼 거제의 시조가 우리 전통문화의 지킴이로 당당히 자리 잡길 기대한다.

최대윤 기자

우리지역 문화·행사·체육 소식

ART BUTTON 전시

- 일시 : 8.19(목)~9.17(금)
- 장소 : 거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입장료 : 무료
- 문의 : 680-1014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 아동권리 음부즈프러스 모집

- 접수기간 : 8.17(화)~8.20(금)
- 모집인원 : 임기 : 5명, 2년, 1회 연임가능
- 대상 : 아동권리 법률전문가, 아동권리 관련 분야 조사·구제 경험자,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문가
- 문의 : 639-4763 아동들봄과

문화가 있는 날 '예술 앙상블'

- 일시 : 8.25(수) 오후7시30분
- 장소 :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관람료 : 무료
- 문의 : 680-1050~1 거제시문화예술재단

발레 자젤(GISELLE)

- 일시 : 8.26(목) 오후7시30분
- 장소 :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관람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초등 이상 관람가
- 문의 : 680-1050~1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서 한 달 살이부가 참여 청년 모집

- 신청기간 : ~ 8.20(금)
- 모집인원 : 가수별 10명 (팀 지원시 2명 이내)
- 대상 : 만19세~만39세 국내·외 청년, 개인 SNS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 가능자
- 활동기간 : 27 : 9.1(수)~10.1(금), 3기 : 10.4(월)~10.29(금)
- 활동내용 : 육포지역 로컬콘텐츠 경험 제공, 텀블 로컬크리에이터 체험, 개별 자유여행
- 문의 : 687-1318 휴이유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경남 소액금융지원사업 경남회향론 신청

- 사업기간 : 2021.8~2026.7(5년)
- 지원비 : 25억원 (도비)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이행하거나 최근 3년내 완제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이상 변제 계획을 이행하거나 최근 3년내 완제한 자
- 지원액 : 긴급생계자금 15백만원 한도, 4% 이내 저금리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청원자부 방문, PC·앱 비대면 신청
- 문의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거제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글로벌 공기업

“농지은행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농지매입 비촉사업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농지를 공사가 감정평가 가격(시가)로 매입합니다.

경영희생 지원사업

부채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경제력을 회복한 뒤 부채를 상환해 다시 농지를 가져옵니다.

농지 연금사업

65세 이상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

농촌정책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만39세 이하)에게 농지은행이 농지를 지원합니다.

농지 규모화 사업

전업농·일반농·청년창업농·후계농·귀농 농지 매입 사업과 농지 장기 임대차를 지원합니다.
※ 과수 농업인에게만 과원규모 확대 지원

농지 임대 수탁사업

개인간 임대차가 금지된 1996년 이후 구입한 농지를 공사에서 임대수탁 계약을 시행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사장 **김재홍** 고성군 고성읍 가월2길 51 ☎ 670-7014-8 FAX 672-8767